



제주 영화 창작 가능성 펼치는 독립영화 축제

제주독립영화협회 2회 영화제 13-15일 CGV제주 노형 등 'B급 무비 프로젝트' 결실 김경률상 민요패소리앗 선정

제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만드는 영화축제인 제주독립영화제. 제주독립영화협회(대표 고혁진)가 연말 그 두번째 여정을 이어간다.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2019년 메세나 매칭 그랜트 사업으로 마련됐다.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등지를 틀고 작업하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연출한 장·단편 영화와 초청작을 선보이는 비경쟁 영화제로 치른다.

영화제는 첫날 오후 2시 CGV제주 노형에서 상영되는 단편기획 '갑

독의 초심전' 섹션으로 막을 올린다. 제주 독립영화 감독들의 초기 단편 작품을 모았다. 오후 5시에는 개막식이 열려 제주에서 활동하는 서장석 감독의 첫 독립장편영화 '햇살 피하는 남자'를 개막작으로 공개한다. 이 작품은 한 남자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를 담담히 그려낸 '소프트 느와르'물이다.

이날 제2회 김경률상 시상도 이루어진다. 1992년 창단 이래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을 소리판과 등에 담은 민요패 소리앗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둘째날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장·단편 상영이 잇따른다. 변성진 감독의 장편 '미여지 뱅딕', 민병국 감독의 장편 '천화', 오태경 감독의 단편 '소연이의 주전자'를 볼 수 있다. 특히 '소연이의 주전자'는 지난해 제주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한 B



제2회 제주독립영화제 개막작 '햇살 피하는 남자'.

급무비 프로젝트로 제작지원한 영화다. 2019년 제3회 안산단원국제예술 영상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이번에 처음 제주 관객들과 만난다. 마지막 날에는 예술공간 오이로 향한다. 단편섹션으로 오후 2시부터 문재웅 감독의 '김녕회관', 이지은 감

독의 '알바다', 이상목 감독의 '마임 이스트', 고창균 감독의 '포레스트 헤븐(forest heaven)'을 상영한다. 관람료 무료. 영화제 홈페이지(www.jeiff.kr) 참고. 영화제 후원 등 문의는 010-6798-7039, 010-3691-1718. 전선희기자

시(詩)로 읽는 4:3 (38)

완벽한 상실(1)

김병택

조천면 교래리 한 초가집
잇단 총성이 뒤뉘는 대밭을 흔
들었다
9연대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그의 가족이었다

중조할머니는
총에 맞아 숨져가면서도
담요에 싼 손자를 급히 대밭으
로 던졌다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던 그는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살았다
오른팔을 구부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다

게다가, 그는 거처하던 과수원
판잣집의 화재로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가혹한 삶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2월
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
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
단으로 살상하는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진압군은 중산간마을 방
화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개령(疎
開令)을 내려 해변마을로 내려오
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혹은
채 전달되기 전에 진압군이 들이닥
쳐 방화와 함께 총격을 가하는 바
람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집단희생
을 당했다. 미군 비밀보고서에는
"9연대가 마을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계획을 채택했다"거나 "2연대
는 신분과 무기소지 여부에 관계없
이 폭도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
을 사살하는 가혹한 작전을 벌였
다"고 기록돼 있다.

교래리(橋來里)는 예로부터 다
리(橋)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700여 년 전 화진민들에
의해 설촌된 마을이다. 고려시대부
터 목마장이 설치되어 준마(駿馬)
를 길러내는 지역으로, 왕에게 말

을 진상했을 정도로 마장(馬場)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웃두리, 알두리
로 이루어져 약 100여 호의 주민이
살았던 중산간 오지인 이곳에는 조
토화작전의 초기부터 엄청난 피해
를 당했다. 1948년 11월 13일(음
력 10월 13일) 새벽 5시경, 군인들
이 교래리를 포위한 가운데 집집마
다 들이닥쳐 다짜고짜 불을 붙이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
나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오던 주민
들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
졌다. 날이 밝아 총성이 멎었을 때
100여 호 모여 살던 교래리는 이미
잿더미로 변했다. 주민들은 인근
야산으로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그들은 느닷없이 들이닥쳐 무조건
불을 지르는 토벌대의 행태에 놀라
기도 했지만 가을걷이한 곡식과 우
마(牛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며칠만 버티면 괜찮겠지" 생각하
며 간단한 생활집기를 걸머지고 야
산의 동굴이나 케 혹은 움막을 짓
고 피신생활을 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오름의 사계절 닮은 제주인의 생애

김한결의 '삶의 길, 오르다'
춤 공연과 사진·영상 전시

오름의 사계절과 제주인들의 삶이
춤으로 살아난다. 제주에서 활
동하는 한국무용수 김한결이 '삶
의 길, 오르다'란 이름으로 공연
과 전시를 준비했다.

제주해녀와 영등할망을 소재로
풀어왔던 김한결은 이번에 봄, 여
름, 가을, 겨울 동안 오름에서 활
영한 댄스 필름을 활용한 창작무
를 펼친다. 오름의 사계절을 따라
우리네 삶의 탄생과 성장, 절정,
죽음의 과정이 그려진다. 이달
21일 오후 7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춤 무대에 앞서 전시도 마련된
다. 이달 16-22일 갤러리카페 거
인의 정원에서 같은 제목으로 오
름에 깃든 정서를 끌어낸 사진과
영상을 풀어낸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
작지원사업 작품으로 공연과 전
시 모두 무료로 만날 수 있다. 국
립국악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한결은 2014년 이래 제주살이
를 이어가고 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문화가 쫓겨

배효정 개인전 '집들이'

제주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있
는 배효정 작가의 첫 개인전 '집들
이[Houses]'가 예술공간 이아 갤러
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는 그가 살아온집들에
얽힌 짧은 글과 설치 작업들이 펼쳐
지고 있다. 20년간 스물 네 번의 이
사를 했고 대구에서 서울로, 미국 중
서부 유타주를 거쳐 동부의 뉴욕으
로, 다시 서울로, 그리고 제주까지
이어지는 작가의 집 이야기가 담겼
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교원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제주교원오케스트라(음악감독 양경
식 삼성여고 교사, 지휘 홍정도 제주
여중 교사)는 이달 1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정기연
주회를 연다.

이날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 베
토벤의 '운명 교향곡' 등이 연주된
다. 흥태림 제주대학교부설초 교사,
바리톤 정용택, 현영희 대정서초 교
감이 협연한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있는 교원이나 교육 가족은 010
-9989-5539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서 전국 아리랑 소리제

사단법인 제주도아리랑보존회는 이
달 14일 오후 4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도 전국 아리랑 소리제'를 펼
친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천아리랑, 하르
방아리랑, 대구아리랑, 광복군아리랑,
우도아리랑, 북해도아리랑, 서우제아
리랑 등이 불려진다. 15일 낮 12시
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90번지 제주아
리랑 소리전수관 개관식을 진행한다. 이
튕날 오전 11시에는 대정을 알뜨르비
행장에서 4:3위령제 공연을 갖는다.

청소년 제작 마을 가이드북

사회적기업 (주)제주착한여행(대표
허순영)은 카카오와 제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제주 청소년들
이 직접 만드는 제주마을여행 가이
드북 '우리처럼 제주' 제작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1-6월 진행
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14-19세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개인이나 단체
로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
주착한여행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82-5152.

일본 홋카이도 찾아 제주민요 공연

제주민요보존회(회장 강문화)가 일
본 홋카이도 초청으로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삿포로시 와타나베 준
이치 문화관 특설 무대에서 국가무
형문화재 제주민요를 공연한다.

홋카이도는 제주 출신 등 4500여
명의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으
로 2016년 제주와 국제우호도시를
맺었다. 지난해에는 홋카이도 '에존

뮤직'팀이 탐라문화제에 참가해 일
본전통 현악기 연주 등을 펼쳤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제주민요보존회는 제주민
요 '느영나영', '오돌토기', '영주십
경' 등을 물허벅 연주 등으로 들려
줄 예정이다.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
사관(총영사 박현규)이 후원하는
행사다. 전선희기자

http://www.hirentacar.co.kr


글로벌 4대 브랜드 SIXT 국내유일 파트너사

제주원렌트카

김포공항점

오픈기념 EVENT!!

제주도민 특별할인!

- ✓ 제주원렌트카 본사 직영지점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저옵서예.
- ✓ 김포공항에서 차량 인수/반납 가능합니다!
- ✓ 안전차차 가입으로 서울에서도 부담없는 편안한 여정이 가능합니다.
- ✓ 관공서·법인(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할인요금표 및 각종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문의
1588-3373, 02-6953-6402

- 김해공항지점 051-941-8351
- 부산KTX점 051-851-9588
- 강남지점 02-552-7288
- 서울역KTX점 02-569-4222